【 국어학의 이해 2 】

향찰과 향가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 론

이 글은 향가와 향찰을 일반인에게 혹은 향가와 향찰에 대해 초보적인 것을 이해시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다.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네들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떤 문자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어학자들에게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문자학을 전공하지는 않지만 고대의 문헌을 읽어야 하는 사람에게나, 중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향가나 향찰의 대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향가나 향찰에 대한 이해가 곤혹스러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훈민정음(혹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을 중국 문자인 한자를 빌어 표기했는데(이를 '借字表記'라고 한다), 이때 한자의 뜻을 빌어 표기하기도 하고, 한자의 음을 빌어 표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를 표기하기 위하여 '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伊'라는 문자로 주격조사를 표기하기도 하였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是'라는 문자로 주격조사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光明理世'라는 뜻을 가진 신라 시조왕을 '赫居世'라 표기하기도 하고 '弗矩內'라고 표기하기도 했는데, 후자는 한자의 음을 빌어 당시의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고 전자는 동일한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즉 한자의 뜻을 빌리기도 하고 한자의 음을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 글은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식의 일부에 대해 일반인이나, 전공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다.

2. 지금 한글이 없다면

미국에 간 친구와 새로 배운 전자 우편(E-mail)으로 통신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친구와 한글이 완벽하게 호환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영어로 마음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야, 오늘은 너의 생일인데, 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선물도 줄 수 없구나."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영어를 빌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영어 단어를 빌어 우리말 순서대로 적으면 이 친구가 알아 들을 수 있을 테지. "friend, today your birthday, you far away is, present give cannot."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영어 알파벳을 빌어서 우리말 발음처럼 적어 보면 어떨까? "Chingu-ya, onul-un neo-ui saengil-indae, nei-ga meoli ddeoleocyeo issuni seonmul-to cul su eopskuna."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선 어휘를 표현하는데 조금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우리말의 '-도'는 영어를 표현하면 'also'가 되는데, 'seonmul-to'를 'seonmul-also'로 표현해 볼까. 혹은 문장 전체를 위의 첫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을 적당히 섞어서 표현해 볼까?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전자 우편으로 보내자,

"Friend-ya, today-un you-ui(혹은 your) birthday-indae, you-ga far away is-ni present-to give-su no-kuna."

친구가 답장을 하기를,

"Kurae, thank you-kuna. Soon, meet-gae doigessci."(그래, 고맙구나. 곧, 만나게 되겠지.)

영어의 단어나 철자를 빌어서 표현하지 않고, 한자를 빌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3. 차자 해독의 기본 방법

향가를 해독하는 방법과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은 인식의

순서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향가 해독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해 보자.

앞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의 일부분 즉 '친구야, 오늘은 너의 생일인데'를 한자를 빌어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

'친구'는 한자말이니까 '親舊'를 쓰도록 하자. '야'는 고유어인데 이에 꼭 맞는 한자를 찾기 어려우니까 '야'라는 음을 가진 한자 즉 '也'를 쓰자. '오늘'은 이것의 뜻에 해당되는 '今日'을 쓸 수도 있겠고, 음을 살려서 표기하려면 '오'는 '烏'로 표기할 수 있을텐데 '늘'의 음을 가진 한자어가 없으니까 비슷한 음을 가진 '訥'로써 표기해 보자. 조사 '-은'의 기능을 가진 한자는 없으니까 이것과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 '隱'으로 표기하자. '너'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음도 비슷한 부분을 가진 한자 '汝'로 표기하도록 하자. '-의'는 역시 한자의 뜻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와 비슷한 음을 가진 '矣'로 표기하도록 하자. '생일'은 한자말이니까 '生日'을 쓰도록 하고, 지정사 '-이-'는 이와 동일한 음을 가진 '伊'로 표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뜻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라는 새김(釋)을 가지고 있는 '是'로써 표기할 수도 있겠다. '-ㄴ데'의 'ㄴ'은 '隱'으로 표기하고, '데'라는 음을 가지 한자가 없으니까 (현대의 한자음에서) 비슷한 음을 '待'로 표기해 보자.

이렇게 표기된 것을 정리해 보면, '親舊也 今日(烏訥)隱 汝矣 生日伊(是)隱待'가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고대에 표기된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親舊, 生日' 등은 한자음 그대로 읽어도 될 것이고,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也, 烏

訥, 隱, 矣, 伊, 待' 등은 한자의 음으로 읽는 것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음만을 빌어 온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汝, 今日' 등을 '너, 오늘'로 읽는다면, 그 뜻으로 해독한 것이고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살아 있는 것으로 해독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是'를 '이'로 해독한다면, '是'의 뜻으로 해독했는데 본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해독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차자 해독의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인데, 각각 ①音讀 ②音借(音假) ③訓讀 ④訓借(假)라고 흔히 이른다.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한자의 의미 구조나 음운 구조가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음을 가진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음을 표기하기 위해 여러 문자가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차자된 각각의 한자 하나하나는 동일한 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즉 '고'라는 음을 표기하기 위해 '古, 告, 故' 등의 한자를 빌어 사용할 수 있지만, '古, 告, 故' 등의 글자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다른 음이 아닌 '고'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를 흔히 '1字 1音의 원리'라고 한다. 이것은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할 때 사회적으로 공인된 문자로써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의 한 글자는 여러 가지로 차자될 수 있고, 또한 한자 한 글자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자의 훈을 빌어 표기했을 경우 그 해독자가 어떤 의미로 해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난해한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언어(문자 언어이든, 음성 언어이든)의 기본적인 기능은 의미의 전달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빌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한 후,

다른 해독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혹은 또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앞세우고, 그 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뒤에 놓는 식으로 표기하는데, 이를 흔히 '訓主音從의 원리'라고 한다.

이 외에 차자 표기도 국어의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고, 향가는 시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그 실체는 알지 못하지만) 고대 국어의 문맥 구조에 맞아야 할 것이고, 고대 시가의 운율 구조에 맞아야 할 것이다. 전자를 '맥락일치의 기준'이라 하고, 후자를 '율조적 기준'라고 한다.

4. 향가의 표기 방식

4.1 향가의 문장 표기

한자를 빌어 우리말의 문장을 표기하던 방식은 우리말 문장 구조와의 동일성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완전히 우리말의 구조로 이루어진 구조와 중국어 문장에 우리말의 토를 단 구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중간 구조 등이 그것이다.

중국어 문장에 우리말의 토를 단 구조는 흔히 구결문이라고 한다.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地之間萬物之中厓 唯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者隱 以其有五倫也羅(동몽선습)

則 知 煩惱 無 所 起 (고려 법화경)
ㅋ尔 ㅋㄱの乙 ㅋ

동몽선습의 밑줄 부분이나 고려 법화경의 구결을 빼면 완전한 한문 문장이 된다.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것이 흔히 이두문이라고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이두문은 문법형태소에 한해서 훈독, 훈차, 음독, 음차 등의 표기를 하고 중국어순의 구나 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구조가 된다.

蠶段 陽物是乎等用良 水氣乙 厭却 桑葉叱分 喫破爲遣 飮水不冬(양잠경험촬요)

표기하는 문자는 빌어 오되, 문장 구조는 완전히 우리말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기체 표기와 향찰식 표기이다. 잘 알려진 서기체 표기의 예문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한자의 뜻을 파악한 후 우리말의 문법 형태소를 삽입하여 연결하면 된다.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並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无誓 若此事失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二十二日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임신 서기석)

이 문장의 '二人並誓記 天前誓'라는 부분을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두(둘), 사람, 나란히, 맹세(하다), 기록(하다), 하늘, 앞, 맹세(하다)'라는 단어를 연결하되, 문법형태소를 적절히 삽입하여 우리말로 만들면 된다.

완전히 우리말 구조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차자 표기 방식이 향찰식 표기이다. 이 표기는 모든 형태소에 대해 훈독, 훈차, 음독, 음차 등을 사용하

여 우리말의 문장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비교적 그 해독이 투명한 제망매가의 일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이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해독될 것인데,

이에 뎌에 ᄠᅳ어딜 닙ᄀᆞᆮ(다)
ᄒᆞᆫᄃᆞᆫ 가지라 나고
가ᄂᆞᆫ 곧 모ᄃᆞ론뎌

이 예에서 보듯, 향가는 완전한 우리말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4.2 향가의 단어 표기

향가의 단어(여기서의 단어는 음운론적으로 한 단위가 되는 '어휘형태소 + 문법형태소'의 구조로 된 것을 지칭한다.) 표기는 앞에서 제시했던 '훈주음종의 원리'를 대체로 따른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제망매가의 해독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此矣'를 '이에'로 해독한 것은 〈훈독+음차〉이고 '彼矣'를 '뎌에'로 해독한 것은 〈훈독+음차〉이고, '浮良落尸'을 'ᄠᅳ어딜'로 해독한 것은 〈훈독+음차+훈독+음차〉이고, '葉如'를 '닙ᄀᆞᆮ(다)'로 해독한 것은 〈훈독+훈차〉이다. '一等

隱'을 'ᄒᆞᆫ'으로 해독한 것은 〈훈독+음차+음차〉이고, '枝良'를 '가지라'로 해독한 것은 〈훈독+음차〉이다. '出古'를 '나고'로 해독한 것은 〈훈독+음차〉이다. '去奴隱'을 '가논'으로 해독한 것은 〈훈독+음차+음차〉이고, '處'을 '곧'으로 해독한 것은 〈훈독〉이고, '毛冬乎丁'을 '모ᄃᆞ론뎌'로 해독한 것은 〈음차+음차+음차+음차〉이다.

이렇게 해독된 것을 보면, '훈'으로 해독할 부분이 앞에 오고, 음으로 읽을 부분이 뒤에 온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 원리에 의한 해독을 '훈주음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다.

4.3 향가의 문법 형태소 표기

향가의 실질 형태소는 표기 방식이 고정되지 않지만 문법 형태소는 그 표기 방식이 거의 고정되는데, 자주 등장하는 향가의 문법 형태소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해독은 '김완진(1980), 〈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를 따르되,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 것도 있다. 표기는 형태소를 밝혀 분철하기로 한다.)

4.3.1 격조사 표기

자주 쓰이는 격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주격 표기(15세기 국어의 '-이, -ㅣ')에는 훈차자 '是'와 음차자 '伊'가 사용되었다.(중세나 고대국어에는 주격조사 '-가'는 없었다.) 예 : 魂是(혼이), 雪是(눈이), 人是(사람이), 民是(民이) ; 脚烏伊(가롤오이, 허튀).

2) 속격 표기(15세기 국어의 '-의, -ᄋᆡ, ㅅ')에는 음차자 '衣, 矣, 叱' 등이 사용된다. 예 : 耆郎矣(기랑ᄋᆡ) 乾達婆矣(乾達婆ᄋᆡ) ; 吾衣(나ᄋᆡ), 人衣(사ᄅᆞᆷᄋᆡ) ; 佛體叱刹(佛體ㅅ刹) 嫉妬叱心(嫉妬ㅅ心:마ᄉᆞᆷ)

3) 처격 표기(15세기 국어의 '-애, -에, -ᄋᆡ, -의, -예')에는 훈차자 '中', 음차자 '衣(希), 矣, 良' 등이 사용된다. 예 : 巷中(ᄀᆞᆯᄒᆞᆼᄒᆡ), 汀理也中(ᄆᆞᆯ서리여ᄒᆡ), 海惡中(바ᄅᆞᆯ아ᄒᆡ), 前良中(ᄋᆞᆯ아ᄒᆡ) ; 夜矣(밤애), 彼矣(더에) ; 前衣(ᄋᆞᆯᄋᆡ) ; 彌陀刹良(彌陀刹라), 枝良(가지라).

4) 대격 표기(15세기 국어의 '-을, -ᄋᆞᆯ, -를, -ᄅᆞᆯ')에는 음차자 '乙, 肹' 등이 사용된다. 예 : 手乙(손ᄋᆞᆯ), 法雨乙(법우를) ; 地肹(ᄯᅡᄒᆞᆯ), 花肹(곶ᄋᆞᆯ).

이외에 '於'를 훈차자하여 '를'의 표기로 해독한 것이 있다.(伊於 : 더를)

5) 구격 표기(15세기 국어로 '-ᄋᆞ로, -으로')에는 음차자 '留, 乙留'가 사용된다. 예 : 筆留(붇으로), 水留(ᄆᆞᆯ로) ; 法叱供乙留(法ㅅ供으로).

6) 호격의 표기(15세기 국어의 '-아, -야, -여, -하')에는 음차자 '下, 良, 也, 邪' 등이 사용된다. 예 : 心下(마ᄉᆞᆷ하) ; 花良(곶아), (矣)徒良(ᄆᆞᆯ아) ; 南無佛也(南無佛아), 花判也('花判'아) ; 藪邪(수플야).

4.3.2 특수조사의 표기

특수조사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조사 '은/는'은 음차자 '隱, 焉'으로 표기된다. 예 : 汝隱(너은), 吾隱(나ᄋᆞᆫ) ; 吾焉(나ᄋᆞᆫ), 覺樹王焉(覺樹王ᄋᆞᆫ).

2) 특수조사 '도'는 훈차자 '置'와 음차자 '刀, 都' 등으로 표기된다. 예 : 德置(德도), 佛體置(佛體도) ; 佛體刀(佛體도) ; 辭叱都(말도 혹은 마릇도).

3) 강세를 뜻하는 특수조사 '옷'은 훈차자 '衣'로 표기된다. 예 : 伊衣(더옷)

4) 현대국어의 '마다'에 해당되는 특수조사는 음차자 '馬落(馬洛)'으로 표기되는데, 15세기 국어에 '마락'으로 나타난다. 예 : 塵塵馬落(塵塵마락).

4.3.3 선어말 어미의 표기

선어말 어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경어법의 '-시-'는 음차자 '賜(간혹 '史')'로 표기된다. 예 : 去賜里遣(가시리고), 爲賜尸知(ᄒᆞ샬디), 深史隱(깊으신).

2) 경어법의 '-숩-'은 훈차자 '白'으로 표기된다. 예 : 供爲白制(供ᄒᆞ숩져), 讚伊白制(기리숩져), 慕呂白乎隱(그리숩온).

4) 시상법의 '-거-'는 '去'로 표기된다. 예 : 至去良(니르거라), 涌出去良(솟나거라).

5) 시상법의 '-더/다-'는 훈차자 '如'로 표기된다. 예 : 懺爲如乎仁(懺ᄒᆞ더온)

6) 시상법의 '-ㄴ-'는 '內'로 표기된다. 예 : 逐內良齊(좇ㄴ라져), 去內尼叱古(가ㄴ닛고), 置內乎多(두ㄴ오다), 爲內尸等焉(ᄒᆞ놇ᄃᆞᆫ).

7) 시상법의 '-리-'는 '理, 里' 등으로 표기된다. 예 : 何如爲理古(엇더 ᄒᆞ리고), 獻乎理音如(바도리음다), 去賜里遣(가시리고).

4.3.4 종결 어미의 표기

1) 설명법은 훈차자 '如' 혹은 음차자 '多로' 표기되는데, 15세기 국어나 현대 국어의 '-다'에 해당한다. 예 : 抱遣去如(안고가다), 有如(잇다), 去內如(가ㄴ다), 置內乎多(두ㄴ오다 ⇒두노다).

2) 의문법은 훈차자 '去'와, 음차자 '古, 遣, 故, 過' 등이 사용된다. 15세기 국어의 '가, 고'에 대응되고, 현대국어의 '-가'에 해당된다. 예 : 成遣賜去(일고시가), ; 何如爲理古(엇더ᄒᆞ리고), 去內尼叱古(가ㄴ닛고) ; 去賜里遣(가시리고) ; 有叱故(잇고) ; 置乎理叱過(두오릿고).

3) 감탄법은 훈차자 '彼'와 음차자 '丁, 制, 齊, 等耶(邪), 置也, 去也(良), 羅' 등이 사용된다. 15세기 국어의 감탄법 어미에는 '-ㄴ더, -더, -져, -ᄃᆞ야, -도야, -거야, -거라, -라' 등이 있었다. 예 : 刺及彼(가시와더) ; 毛冬乎丁(모ᄃᆞᆯ온더) ; 讚伊白制 ; 逐內良齊 ; 浮去伊叱等邪 ; 事伊置耶 ; 至去良 ; 哀反多羅.

4) 존칭의 명령법을 나타내는 어미로 '賜立'가 있었는데, 15세기 국어의 '-쇼셔'를 나타낸 것이다. 예 : 白遣賜立(숣고쇼셔).

4.3.5 부동사형 어미의 표기

1) 'ᄃᆞ록'(현대 국어의 '-도록')은 '所只, 色只'로 표기된다. 예 : 毛叱所只, 毛叱色只(없ᄃᆞ록).

3) '-아/어)ᄃᆞᆫ'(가정)은 '等隱, 等焉, 等'으로 표기된다. 예 : 盡尸等隱(다옳ᄃᆞᆫ) ; 爲內尸等焉(ᄒᆞ놇ᄃᆞᆫ) ; 行等(니ᄃᆞᆫ).

4) '-나, -놀(양보)'은 '乃, 奈' 등으로 표기된다. 예 : 望阿乃 (ᄇᆞ라나) ; 多奈(하나).

5) '-곤, 매'(인과)은 '昆, 米'으로 표기된다. 예 : 見昆(보곤), 行昆(니곤) ; 去米(가매), 爲米(하매).

6) '-며(병렬)'은 '旅'로 표기된다. 예 : 爲旅(ᄒᆞ며).

7) '-고(나열)'은 '古, 遣'으로 표기된다. 예 : 望良古(ᄇᆞ라고), 聞古(듣고) ; 抱遣(안고), 置遣(두고).

8) '-아/어(행동 전제)'는 '良(只')로 표기된다. 예 : 修良(닷가), 嫁良(置遣)[얼어(두고)] ; 進良只(나삭) 碎良只(ᄇᆞ삭).

9) '-라(목적)'는 '良'로 표기된다. 예 : 修叱如良(닷다라).

4.3.6 관형사형 어미의 표기

관형사형의 어미에는 'ㄴ, ㄹ'의 두 가지가 있었던 듯하다.

1) 'ㄴ'은 '隱, 焉' 등으로 표기되고, 15세기 국어의 '-은, 온, ㄴ'에 대응되고, 현대국어의 '-(으)ㄴ'에 해당한다. 예 : 去隱(春)[간(봄)] 早隱(풍)[이른(바롬)].

2) 'ㅭ'은 '尸'로 표기되는데, 15세기 국어의 '-(으/ᄋᆞ)ㅭ'에 대응되고, 현

대국어의 '-(으)ㄹ'에 해당한다. 예 : 宿尸(夜音)[잖(밤)], 愛賜尸(母史)[ᄃᆞᅀᆞᆭ(어ᄉᆡ)].

4.3.7 동명사형 어미의 표기

15세기 국어로 유추해 보면, 향가(고대국어 시기)의 동명사형 어미의 표기에는 4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표기로 남아 있다면, '-(으/ᄋᆞ)ㄴ'은 '隱'으로, 'ㅠ'은 '尸'로, '-(으/ᄋᆞ)ㅁ'은 '音'으로, '-기'는 '支'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독된 부분들은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기로 한다.

5. 결 론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자는 한자(혹은 이의 변형자)였다. 한자로써 한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우리 문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향가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한자는 중국말을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인데, 중국말과 우리말은 문장 구조, 단어 구조, 음절 구조, 음운체계 등 언어의 모든 단위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자를 운용하게 된다. 차자 표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원리가 동원되고 고안되는 것은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되 우리말을 좀더 우리말스럽게 표기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인간의 창조물 중 인간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문자일 것이다.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 인간 사회는 선사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접어

들게 된다. 이후 인간들은 문자를 계속하여 개발하고 변형하여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 흐름은 대체로 단어문자 - 음절문자 - 음소문자 -자질 문자로 발전하게 된다.

한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어 문자이다. 단어 문자인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말의 단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해 간다. 그리하여 단어문자인 한자를 불완전하게나마 음절문자, 음소문자로 변형하여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말의 문장 구조가 중국어의 문장구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미 단위로써 단어와 형태소라는 언어 단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발화 단위로써 음절과 음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단어의 표기가 훈주음종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러한 단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표기 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의 차이를 인식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의미 단위로서의 형태소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음차자의 기본적인 단위는 대체로 하나의 음절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고, 말음 첨기는 음소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